■ 데콜라주(뜯어내기) 기법 김춘옥전

수묵화에서 출발한 김 씨는 2000년 전시에서 '뜯어내기' 기법의 한지 작품을 처음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그는 캔버스에 한지와 색지를 7, 8겹 붙여 말린 뒤 이를 뜯어내면서 형상을 만든다. 두꺼운 한지층에 칠한 먹이 바탕으로 스며드는 우연의 효과도 일품이다. 먹이 밑으로 스며들수록 연해지는데 이런 차이가 흑백 농담의 차이를 이룬다. 다른 색은 색지를 배접해 이용한다.

그는 "한국화에서 중후한 마티에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식"이라며 "젊은 작가들이 한국화의 현대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민이지만, 무엇보다 작가로서 지금까지 쌓아 온 것을 털어내는 데서 새로운 자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시의 주제는 '자연-관계성'으로 연꽃을 반추상으로 그린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가는 "난초 한 송이를 그린 뒤 우주를 그렸다고 하는 게 동양의 관계성"이라며 "이런 관계성의 미가 서양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연꽃은 생명력과 이상 세계에 대한 상징이다. 전시에는 10~120호 58점을 비롯해 1호 미만의 작품도 30여 점을 낸다.

◀김춘옥 씨가 '자연-관계성'에서 선보이는 작품.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한 뒤 뜯어내면서 형상을 만들었다. 사진 제공 선화랑

뜯어 보고… 붙여 보고… 그윽한 한지의 美

한지 작업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찾아가는 화가들이 있다. 함섭 박철 씨 등이 그런 작가들인데 한국미를 마티에르(질감)에서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시도는 해외 무대에서 한국의 멋을 쉽게 알릴 수 있는 '한(韓) 스타일'로 불리기도 한다. 한지 작가 중 김춘옥(61) 씨와 전병현(50) 씨의 작품전이 나란히 열린다. 김 씨는 28일~4월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02-734-0458)에서, 전 씨는 28일~4월10일 관훈동 인사아트센터(02-736-1020)에서 전시회를 연다. 모두 한지를 사용한 부조 회화이지만 김 씨는 데콜라주(뜯어내기), 전 씨는 콜라주(붙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허 엽 기자 heo@donga.com

■ 콜라주(붙이기) 기법 전병현전

전 씨의 단독 전시는 7년 만이다. '만개(Blossom)'라는 제목의 전시에서는 둥근 백자 항아리에 담겨 있는 꽃 정물 작품을 선보인다. 멀리서 보면 유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한지 요철이 형상을 이룬다.

전 씨는 먼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한지로 쑨 종이죽을 붓는다. 이 '한지죽'이 굳으면 특정 형태를 띠고, 이를 캔버스에 콜라주하는 것이다. 색은 황토나 대리석 가루 등을 이용한 천연 안료를 사용한다. 그는 "캔버스에 색이 스며들게 하는데 이는 우리의 고분벽화 기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의 색으로 흰색을 탐구해 왔다. 7년 전 전시에도 '백색'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는 "흰색의 종류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 미술 작가로서 사회적 소임이 있다면 이처럼 다채로운 색감과 소재를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파리에서 벽화 기법을 배웠다는 그는 "유학 시절에 배운 것은 테크닉일 뿐 내 그림의 원천은 우리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그림일기인 '싹공일기'를 연재하면서 1만여 명의 팬을 가진 '온라인 스타'이기도 하다.

전병현 씨의 '만개'. 한지죽으로 형상을 만든 뒤 캔버스에 붙였다. ▶
사진 제공 가나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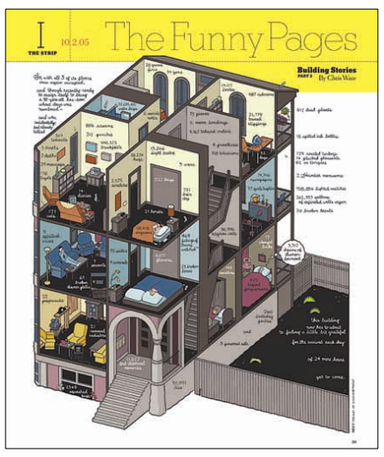
디자인 올림픽 톡~톡 튀는 수상작들

ADC 서울 전시회

산업디자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ADC(Art Directors Club)상. 1920년 산업 디자이너들이 만든 ADC에서 매년 시상하며, 주요 수상작들은 ADC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국내에 몇 점씩만 소개됐으나 올해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민대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4월 15일까지 120여 점의 수상작이 선보인다.

수상작들은 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등 대부분 대중적인 분야여서 어렵지 않다. 미국 최고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크리스 웨어가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연재하는 만화 '퍼니 페이지', 뉴욕에서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불리는 스테판 사그마이스터가 만든 독특한 카탈로그 '애니 콴 브로셔' 등이 먼저 눈에 띈다.

시사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토미 리의 '히로모이즘'은 배트맨과 마오쩌둥을 나란히 놓은 포스터다.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영웅은 '마오'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만화 속 캐릭터"라고 디자이너는 꼬집는다. 이 작품은 중국에서는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은 물론 전시회에 선보이는 것도 금지됐다. 하비 니콜스의 '캘린더'는 명품의 시대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갖기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을 꼬집었다. 첫날 사진은 멋진 구두지만 나머지 30일은 똑같은 구운 콩 사진이다. 구두를 산 뒤에는 한 달 내내 콩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미국 만화가 크리스 웨어의 '퍼니 페이지'.
사진 제공 국민대 제로원디자인센터

이 상을 받은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올해는 재미교포 심예린 씨가 '클래스 매터스'로 그래픽디자인 부문 금상을 받았다. '클래스 매터스'는 평범해 보이지만 제본 방식이 독특한 한 권의 책이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종이가 우산처럼 공중에 머물렀다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 "불편하지만 계급 문제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심 씨가 밝혔듯, 주제 의식이 묵직한 작품이다. 02-745-2490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미술 자료 수집의 달인 "도서관 열었어요"

'김달진 미술연구소' 김달진 소장 전시도록-잡지 등 수만점 전시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는 것도 행복한데, 미술계에서 '자료=김달진'이라고 알아주니 기쁨이 두 배죠."

김달진미술연구소(www.daljin.com·02-730-6214)의 김달진(52·사진) 소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60여 평 규모인 이곳은 일종의 '사설 미술정보센터'다. 그가 발행하는 미술 전문지 '서울 아트 가이드' 사무실이 한쪽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서관이나 다름없다.

이곳에는 그가 37년간 모아 온 미술 자료가 서가에 진열돼 있다. 1950년대 '신미술'지를 비롯해 폐간된 미술잡지와 단행본, 전시 도록이 가득하다. 특히 미술잡지 8종 2만 4995건, 폐간된 잡지 16종 4046건의 기사 색인, 2600여 명의 인명사전 등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소의 자랑거리. 이 자료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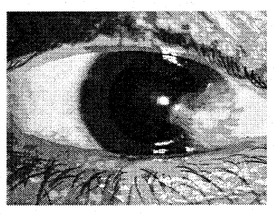
김 소장은 고교시절 잡지에서 명화를 찢어 모으면서 자료 수집 외길에 들어섰다. 전시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자료를 챙겼다. 그는 "셋방을 살면서 자료 때문에 서러움도 많았지만 그것들은 자식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술계에서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전시 일정을 비롯해 미술계의 움직임을 꿰고 있으며, 일간지 기고를 통해 미술 관련 발언도 해 왔다. 그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인정을 받고 이제는 사명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자료를 관리하는 비용을 '서울 아트 가이드'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넉넉지는 않다. 5월부터 월 수 금요일 오후 2~6시 이 연구소를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도 돈을 받을지 말지 고민 중이다. 그는 "자료는 공공 자산이나 다름없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받는 게 마음에 걸려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만학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나왔다. 딸 영나 씨는 만화가로 활동 중이고 아들 정현 씨는 미술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허 엽 기자 heo@donga.com

군날개
각막절편회전술로 완치



과수원 사업을 하는 이일성 씨(43세)는 눈 안쪽에 하얀 백태가 생겼다. 안과에서 자외선과 바람이 심한 근무환경이 원인인 군날개(익상편)라 진단받았으나, 수술을 해도 재발율이 30-50%라는 말에 수술을 포기, 보기 흉해도 참기로 했다. 봄에 병변이 커지자, 알아보던 중 각막절편회전술을 알게 되어 KTX를 이용해 상경, 입원이나 전신마취 없이 간단히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남을 바라볼 때 자신감이 생겨 인상까지 밝게 바뀌었다.

군날개는 커져서 동공을 가리면 난시나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너무 진행되면 제거해도 변성 흔적과 시력장애가 남을 수 있고 재발도 더 잘 된다. 기존의 수술법은 재발율이 5-10%에 달하고, 젊을수록 재발율이 높았으나, 최근 개발된 각막절편회전술은 1% 미만의 재발율과 빠른 회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 독보적으로 각막절편회전술을 시술하고 있는 이안안과 임찬영 원장은 **"수술시 사용하는 약물의 농도와 노출 시간, 수술 술기의 섬세함이 모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하게 시술 병원을 선택할 것을 권유한다.

서울역 앞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1층의 세브란스 클리닉 센터 내에 있는 이안안과는 안과 미세수술로 국내 최고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에 합당하는 수술과 장비의 관리로 부작용 없는 매우 안정적인 수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미세절개 백내장 수술을 위주로한 백내장 클리닉과 프라임 라섹, 알티산텐즈, 알티플렉스 렌즈 등 최첨단 시력 교정 클리닉도 운영하며, KTX 역사와 직접 연결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올 수 있고, 1100 여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안안과
Ian Eye Center
상담 02)319-0012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1층

전동휠체어 · 전동수쿠터 · 수동휠체어
무료공급
1차 300대 한정 선착순

■ 신청자격
독립적 보행이 어려운 1~3등급 장애우.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블로그 이용 http://blog.paran.com/greenms
■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보장구 처방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보장구 처방전 · 적격통지문
참고 「보장구 처방전」에는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상지(팔)의 이상으로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필히 기재 되어야 합니다.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위 사진의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원근거
장애우를 위한 본 행사의 지원처는 국민 건강 보험공단, 시·군·구 사회복지과, 그린메디컬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1차 300대 한정 선착순 마감합니다.)

전국 지점 모집

GM 그린메디칼서비스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1 미라보타워 4F
T. 02)2215-7908 F. 02)2213-7909

필리핀 은퇴비자
필리핀 은퇴청 한국 공식 대행사 락소(주)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미래를 안내 해드립니다.
☎777-0839
편안한 쉼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있습니다.

• 필리핀 은퇴 생활 답사 투어 안내 •
1. 답사투어 일정은 현지 문화 이해, 생활 물가 체험, 부동산 정보 습득 등을 중심으로 진행
2. 필리핀은퇴청 한국대행사 직원, 현지 락소직원, 필리핀 부동산 직원 동행
3. 현지로 이주하신 분들을 만나서 현지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닐라/수빅/클락/바기오 7일 134만원 4/10, 19, 26
–마닐라집중현지답사(수빅/클락)5일 119만원 4/1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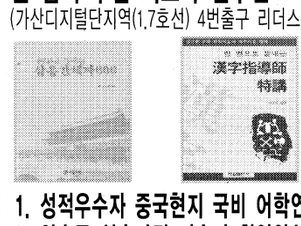
• 제49,50차 은퇴 생활 세미나 안내 •
1. 일 시 : 2007. 4. 5(목) / 4. 12(목) 14:00 ~ 15:30
2. 장 소 : 필리핀 은퇴청 한국 공식대행사 락소(주)사무실
3. 참가신청 : 02-777-0839 (30명 한정)
[참가비 1만원, 필리핀 Long Stay 책자 증정, 사전 예약 요망]
※은퇴비자 예치금 인하 – 만 50세 이상 미화2만불
만 35세이상~만49세이하 미화5만불

• 필리핀 은퇴 생활 안내 •
한국에서 근접성 ➔ 필리핀 마닐라까지 4시간 소요
인건비가 저렴한 ➔ 가사도우미 : 7 ~ 12만원, 운전기사 : 14 ~ 20만원
의사소통 용이함 ➔ 정서적으로 통하는 영어권
지속적 교민증가 ➔ 거주의 장점이 부각됨
은퇴비자 취득 시 ➔ 영구 거주 가능 및 입출국이 자유로움
학생비자나 외국인 수학허가 없이 자녀 학업가능

필리핀 은퇴청 한국 공식 대행사 락소(주)
100-110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304호
TEL : 02-777-0839 FAX : 777-8507
http://www.prvisa.co.kr

세계는 지금 간체자를 배웁니다.
공용한자지도사
자격 연수생 모집

공개강좌:2007.3.31(토) 오후2시
■ 접수기간 : 2007.3.12(월)~3.30(금)
■ 연수기간 : 2007.4.7~8.11(18주 70시간)
■ 연수시간 : 오전반 09:00~13:00 / 오후반 14:00~18:00
■ 연수장소 : 본 협회 부설 지도사 연수원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4번출구 리더스타워 1407호)



■ 특 전 : 1. 성적우수자 중국현지 국비 어학연수 1개월 파견
2. 연수중·실습과정 이수자 취업알선
3. 〈공용한자교실〉 가맹점 지역개설권 부여
4. 자격연수 수료증 수여
■ 연수 및 교재문의
사단법인 한중문자교류협회 (대)02-785-26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za.or.kr)를 참조하세요.

• 주관:(사)한중문자교류협회 • 인증:중국국가한판고시처(HSK)
• 시행:한중공용한자능력검정회 • 후원: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